

유통

Daily 코멘트 및 뉴스 업데이트

유통 코멘트

미국 고급 백화점 '바니스뉴욕' 파산보호 신청 <https://bit.ly/2KupCC>

- 바니스뉴욕이 파산 보호신청 결정. 매각 전문사와 협의 내용에는 주요 지역 내 7개 매장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폐업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짐
- 파산을 신청하게 된 이유는 1) 온라인으로의 빠른 소비 이전과 2) 높은 임대료 상승 때문
- 한국의 경우 자가 매장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임대료 상승에 따른 비용부담은 상대적으로 낮음
- 그러나 한국 또한 온라인으로의 빠른 소비 이전에 따른 온라인 기업과의 경쟁은 동일
- 1) 온라인 침투율이 높고(1Q19 미국 10.2% vs 한국 28%) 2) 파편화 되어있는 한국 시장 내 온라인으로의 소비 이전에 따른 오프라인 채널의 피해는 미국보다 더욱더 클 것
- 현재 한국 백화점의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명품 및 프리미엄 가전 매출 고신장 때문 (1H19 백화점 채널 평균 객수 -6.8% vs 구매단가 +8.2% YoY)
- 향후 온라인 기업이 명품과 프리미엄 가전 판매를 본격화 할 경우 백화점 채널의 경쟁력은 크게 떨어질 것
- 장기 성장을 위해서는 오프라인 백화점에서의 방문을 이끌 수 있는 차별화된 객수 확보 전략 (ex 백화점의 물렁화)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

전일 주요 뉴스

- 홈플러스, '더클럽' 서울 전 지역 당일 배송(오후 4시전까지 주문 고객, 10만원 이상 구매 고객) 서비스 개시 <https://bit.ly/2OEnPjn>
- 11번가, 마트/패션 카테고리 신규 셀러 입점 수수료 인하 <https://bit.ly/31iv1mX>
- 쿠팡이츠, 타 경쟁플랫폼 대비 높은 최저시급과 건당 수입 보장. 현재 쿠팡 이츠 배달 파트너에 등록된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4,800명을 넘는 것으로 알려짐 <https://bit.ly/2ThC24l>
- 외교부, 일본 방문 관련 여행경보 발령도 검토 <https://bit.ly/2YRbo7K>

① 롯데하이마트 (전일주가 -2.11%)

- 롯데하이마트, 자사 온라인 채널에서 해외 직구 대행 서비스 시작 <https://bit.ly/2YNYTWp>

② GS리테일 (전일주가 +0.64%)

- GS리테일, 완전 자회사 GS네트웍스에게 1,377억원 규모 토지 및 내부 설비 등 현물 출자 <https://bit.ly/2YvgJ5q>

미래에셋대우 유통 커버리지

종목명	티커	투자 의견	목표주가	주가	시가총액 (십억원)	성과(%)				
						1W	1M	3M	YTD	1Y
롯데쇼핑	023530	Trading buy	220,000	124,000	3,508	-10.1	-23.2	-30.5	-41.2	-40.8
이마트	139480	매수	190,000	112,500	3,136	-8.5	-21.3	-34.0	-38.4	-50.3
신세계	004170	매수	360,000	233,500	2,299	-9.8	-18.6	-30.5	-8.8	-30.7
롯데하이마트	071840	Trading buy	53,000	34,150	806	-5.7	-21.9	-29.1	-26.8	-56.8
현대백화점	069960	매수	125,000	70,400	1,648	-6.5	-13.0	-29.5	-22.1	-30.6
GS리테일	007070	매수	48,000	39,200	3,018	4.5	-0.3	2.6	-3.2	18.1
BGF리테일	282330	매수	262,000	215,000	3,716	4.1	8.6	1.7	5.4	28.0

주: 2019.8.6일 기준, 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글로벌 유통기업 Peer valuation

이름	티커	시가총액		수익률					P/E(X)		P/B(X)		ROE(%)	
		Local	USDmn	1W	1M	3M	YTD	1Y	19F	20F	19F	20F	19F	20F
롯데쇼핑	023530 KS	3,508	2,886	-10.1	-23.2	-30.5	-41.2	-40.8	13	11.1	0.3	0.3	2.4	2.7
이마트	139480 KS	3,136	2,580	-8.5	-21.3	-34.0	-38.4	-50.3	11.2	9.2	0.4	0.4	3.5	4.0
신세계	004170 KS	2,299	1,891	-9.8	-18.6	-30.5	-8.8	-30.7	4.5	7.9	0.5	0.5	19.5	6.9
롯데하이마트	071840 KS	806	663	-5.7	-21.9	-29.1	-26.8	-56.8	7.8	7.2	0.4	0.4	5.0	5.2
현대백화점	069960 KS	1,648	1,355	-6.5	-13.0	-29.5	-22.1	-30.6	7.2	6.3	0.4	0.4	5.4	5.9
GS리테일	007070 KS	3,018	2,483	4.5	-0.3	2.6	-3.2	18.1	21.2	17.9	1.4	1.3	6.6	7.4
BGF리테일	282330 KS	3,716	3,057	4.1	8.6	1.7	5.4	28.0	22.2	19.6	5.8	4.7	28.8	26.3
GS홈쇼핑	028150 KS	1,043	858	-6.5	-6.7	-7.0	-11.5	-19.5	8.4	8.1	0.9	0.8	10.7	10.1
현대홈쇼핑	057050 KS	1,062	874	-5.4	-14.5	-10.3	-10.6	-22.0	7.3	6.8	0.6	0.6	8.6	8.6
Walmart	WMT US	302,087	302,087	-5.6	-5.5	3.3	13.6	18.0	21.8	20.9	4.1	3.9	18.7	19.0
Kroger	KR US	17,510	17,510	2.3	0.8	-14.7	-20.3	-26.7	10.1	9.5	1.8	1.6	20.8	17.8
Costco	COST US	116,588	116,588	-5.2	-1.2	8.5	30.1	19.0	32.4	31.0	7.9	7.0	25.6	23.7
Target	TGT US	41,392	41,392	-7.0	-8.9	6.3	22.2	-1.0	13.6	12.8	3.6	3.3	26.5	26.4
Macy's	M US	6,372	6,372	-8.4	-4.9	-11.1	-30.7	-46.8	6.8	7.1	0.9	0.9	14.4	12.4
Bestbuy	BBY US	17,662	17,662	-14.1	-8.0	-11.8	24.9	-13.5	11.6	11.0	4.9	4.8	43.9	43.3
Nordstrom	JWN US	4,670	4,670	-1.6	-5.6	-25.7	-35.2	-40.7	9.0	8.6	6.4	8.0	60.0	74.8
Ocado	OCDO LN	8,115	9,899	-6.7	-5.1	-15.8	47.2	7.8	-	-	11.9	13.3	-16.4	-11.6
Isetan Mitsukoshi	3099 JP	312	2,932	-10.0	-14.3	-25.6	-35.1	-36.3	21.3	16.3	0.5	0.5	2.5	3.1
Takashimaya	8233 JP	218	2,052	-2.2	-1.6	-1.7	-12.5	-33.8	10.7	11.4	0.5	0.5	4.7	4.2
Seven & I holdings	3382 JP	3,284	30,873	-2.5	-3.8	-4.0	-22.5	-17.8	15.3	13.9	1.2	1.2	8.3	8.7
Familymart	8028 JP	1,129	10,615	-5.9	-16.3	-24.9	-35.9	-16.6	22.2	21.7	1.9	1.8	8.6	8.2
Lawson	2651 JP	540	5,073	-0.9	0.4	3.7	-22.6	-18.7	29.2	21.1	1.9	1.9	6.6	9.0

주1: Local 시가총액은 십억원, 십억원, 백만달러임

주2: 일본기업은 FY2019와 FY2020에 해당함

주3: 연결기준, 롯데하이마트는 개별 기준

자료: Bloomberg, 미래에셋대우 리서치센터

Compliance Notice

- 당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신세계, GS리테일, 롯데쇼핑, 이마트(를)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식워런트증권에 대해 유동성공급자(LP)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-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.
-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조사분석 대상법인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
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,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.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.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.